

만물 값보다 사연 값이 더 크다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면서한 말이 더 크다

본 문 로마서 1장 20절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빕니다.

이번 주 주일에는 <하늘 언어>에 대해 생방송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수련회 이후 한 번 더 말씀을 들으니, 확실히 이해가 되지요?

그리고 월명동의 소나무들과 돌들의 ‘사연’을 말해 주면서, 만물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어떻게 증거하는지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이 가장 귀한 보화이며 보물인지 말씀해 주면서, 주일에 못다한 말씀을 해 주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여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신 <보화와 보물>이 무엇인지 깨닫고, <보물>을 얻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시작>

사람들은 ‘좋은 환경’이나 ‘보물’을 얻고 사는 것만 귀하게 생각합니다.

- 그러나 ‘귀한 것을 깨닫고 사는 것’도 좋은 환경이나 보물을 얻고 사는 것같이 귀합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은 영원히 유익하고 귀한 삶의 보물입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 ‘시대 보낸 자’ , ‘자기 육과 혼과 영’ , 그리고 ‘만물들’ 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깨닫고 사는 것도 좋은 환경과 보물을 얻고 평생 먹고 입고 누리며 사는 것같이 귀합니다.

- ‘귀한 생명의 진리를 얻고 사는 것’ 은 돈이나 보물을 얻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영원히 귀한 것’ 을 얻고 사는 것입니다.

- ‘영원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기뻐하며 사는 것’ 이 세상에서 귀한 환경이나 산이나 만물을 얻고 사는 것보다 크고 귀한 것입니다.

- ‘세상에 속한 것’ 만 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행하며 사는 것’ 이 영원한 보물이며 영원한 재산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 ‘월명동의 환경, 땅, 산, 물, 돌, 나무들’ 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보물입니다.

- ‘이 시대에 우리가 행할 말씀’ 은 그보다 더 귀한 재산이며, 휴거되어 영생을 얻게 하고 황금성에 가게 하는 영원한 보물입니다.

- ‘이 시대 구원의 말씀, 휴거의 말씀, 잠언의 말씀’ 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하는 가장 귀한 보물이며 영원한 재산입니다.

<전환>

◆ 월명동에는 ‘두 개의 보물’ 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신 ‘육적’ 인 <환경의 보물>이고, 또 하나는 ‘영적’ 인 <시대 말씀의 보물>입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신 <환경과 만물의 보화>를 사용하면서 <시대 말씀>을 실천하며 삶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휴거되라고 우

리에게 두 개의 보물을 주신 것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 ◆ 월명동의 소나무들과 돌들에는 ‘두 개의 값’ 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체 값**’ 이고, 또 하나는 ‘**사연 값**’ 입니다.

- <기도 표적 소나무>는 나무의 가지들이 동서남북으로 멋있게 뻗어 나가 수형이 멋있게 잡혀 있어 그 자체로도 값이 나갑니다. ‘자체 값’은 1억 원입니다.

그러나 뒷동산에 산불이 났을 때 그곳에 있는 소나무들이 다 죽으면서 그 소나무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여 그 소나무 한 그루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나무를 살려 주신 것과 같이, 기도하면 생명도 이와 같이 살아난다는 사연이 있는 소나무입니다. 이 ‘사연 값’을 따지면 1억 천만금이 됩니다.

- <성자바위>는 형상이 있기에 ‘자체’로도 그 값이 비쌉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그 바위를 보여 주셔서 케왔고, 선생이 하늘 사명을 하기 전에 어렸을 때 놀고 좋아하던 바위이니 ‘그 돌에 얹힌 사연 값’ 이 있습니다.

만일 ‘사연’이 없으면, ‘자체 형상 값’만 나갈 것입니다.

‘사연 값’이 ‘자체 돌 값’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 이밖에도 월명동의 소나무들과 돌들에는 ‘자체 값’도 있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얹힌 사연 값**’ 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일말씀에 여러 가지 사연을 말씀해 주면서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 사연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 <만물>이나 <사물>만 귀한 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얽힌 사연>도 보물입니다.

이를 깨닫고 알고, 늘 증거하고 말하면서 써야 되겠습니다.

- 온 대지와 산에 귀한 나무들이 많은데 ‘어느 작고 멋없는 나무 한 그루’가 사람들에게 높이 꿈을 받았고, 그 옆에 정자도 지어 주었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임금이 그 나무에 늘 퇴비를 해 주고, 누가 캐 가려고 할 때 보호하라고 하여 살게 된 나무였습니다.

그러니 <천연기념수>가 된 것이었습니다.

→ 이와 같이 나무나 만물의 ‘**자체 값**’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무나 만물에 얽힌 사연’이 있어야 귀하고, 하늘까지 솟는 값이 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보며 교훈으로 삼게 됩니다.

<전 환>

◆ ‘선물’만 귀한 것이 아닙니다.

‘선물을 주면서 말한 것’이 더 귀합니다.

- 가령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선물을 주면서 “사랑해.” 하면, ‘선물’보다 “사랑해.”라고 한 그 말이 더 중한 것입니다.

- 가령 성자가 선물을 주면서 “이것은 너를 상징한 것이다.” 하면, ‘선물’보다 ‘그 말씀의 값, 사연 값’이 더 귀한 것입니다.

- 가령 성자가 보낸 자가 선물을 사 주면서 “나와 같이 내 일 좀 하자.” 하면, ‘선물’보다 ‘그 말’이 1억 천만금같이 귀하고 중한 선물이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 ‘만물’만 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가 더 귀합니다.

- 형상을 가진 수석 중에서도 ‘그것을 가진 자를 상징하는 자화상 돌’이나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상징하는 형상 돌’이 가장 큰 가치가 있습니다.

- 돌이나 나무나 지역이나 ‘어떤 것을 상징하고, 누구를 상징하느냐. 어떤 형상이냐.’에 따라 신비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 월명동 지역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지요?

① 운동장을 중심으로 다섯 개의 골짜기로 되어 있어서 ‘별’을 상징합니다.

② 또한 ‘여자의 자궁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 상징대로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③ 또한 풍수지리학으로 볼 때 ‘좌청룡, 우백호’의 형상으로 명당입니다.

④ 또한 옛날부터 전설이 강같이 흘러 내려와 이 지역에서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와서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밀려온다고 했습니다. 그 말대로 되었습니다.

→ 이로써 월명동의 가치가 입증되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 임금이 선물을 주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가 중합니다.

임금이 선물을 주면서 “네가 백성들을 잘 대해 주어 선물을 준다.” 하는 말과, “네가 선물을 좋아하니 받고 좋아하라고 준다.” 하는 말과, “내가 사랑하여 선물을 준다.” 하는 말 중에서 어떤 말이 크겠습니까?

<선물>은 ‘증표’입니다. 고로 선물을 주면서 어떤 뜻을 두고 어떤 말을 하면서 줬는지가 중합니다. ‘그 말’에 따라서 가치가 좌우됩니다.

◆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니, ‘어떤 것, 누구를 상징하고 졌느냐’가 더 중합니다.

성자가 어떤 선물을 주면서 “이것은 너를 주려고 삼위일체가 불로 녹여서 만든 걸작품이다.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갈 수 있게 만든 신비한 작품이며 튼튼한 작품이다. ‘이 시대와 너를 상징한 대걸작’이다. 잘 관리하고 깨끗이 청소하면서 써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선물입니다.

◆ 산도, 돌도, 나무도, 지역도 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창조하신 대걸작’입니다. 그러나 눈을 떠야 알아보고 기뻐하며 그 가치를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창조하신 만물을 볼 때나, 월명동에 주신 것들을 볼 때나,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볼 때나 ‘그 자체’만 보지 말고 ‘그것을 주시며 하신 말씀과 사연’을 알고 보고,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고 봐야 가치를 알게 되고, 그로 인해 많은 것을 깨닫고 얻게 됩니다. 믿습니까?

<전환>

‘돈, 육적 환경, 육적 보물’만 귀한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을 깨닫고 사는 것,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시대 보낸 자를 믿고 사는 것, 시대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며 사는 것, 자기 육과 혼과 영의 가치를 알고 사는 것이 더 크고 영원한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신 ‘만물’도 귀하고, ‘월명동에 주신 나무와 돌 등 각종 선물’도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물보다 ‘그것에 얹힌 사연’과 ‘그것을 주시며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하신 말씀’이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더 귀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누구를 상징하는지’가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이 귀한 보물인지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 ‘자기가 받은 사명’ 이 그리도 크고 귀합니다.

구시대 말고, ‘지금 진행 중인 새 시대에 와서 자기가 받은 사명’ 이 그리도 크고 귀합니다.

◆ ‘누가 사명을 줬느냐’ 에 따라서 가치가 좌우됩니다.

‘왕’ 이 사명을 줬느냐, ‘왕을 보좌하는 자’ 가 사명을 줬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좌우됩니다.

◆ ‘어떤 사명’ 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가치가 좌우됩니다.

◆ 이 시대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계획하신 뜻’ 을 행하시니, ‘이 시대 사명을 받은 자’ 가 그리도 귀하고 중합니다.

◆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도 수천만 가지입니다.

‘구원하는 메시아 사명’, ‘말씀을 듣고 배워서 증거하는 사명’, ‘말씀을 듣고 크는 자들을 관리하며 기르는 사명’, ‘생명을 전도하는 사명,’ ‘따르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장소를 만드는 사명’ 등 각종 사명이 있습니다.

마치 사람의 각 지체가 하나이지만 각각 다른 기능을 하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도 많고 많습니다.

‘어떤 사명’ 을 받아서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일’ 이 좌우되어 ‘그 가치’ 가 좌우됩니다.

◆ 구시대 사명을 받은 자는 구시대에서 일하고, 구시대에서 귀한 자 취급을 받습니다.

◆ 새 시대에서 사명을 받고 살아도 옛날 사명은 옛날에 끝납니다. 고로 새 시대 안에서도 ‘현재 진행되는 사명’ 을 받고 일해야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자는 말씀하시기를 “나 성자도 내 분체도 왜 ‘선물’을 주는지 깨달아라.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면서 뜻 한 바’가 더 크고 ‘그 선물을 주면서 말한 것’이 더 크다. 기도해야 알게 된다. 그것을 아는 것이 응답을 받은 것이다.” 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 7번 읽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